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11. 1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유럽연합(EU), 모잠비크에서 대테러 군사훈련 개시
 - 11.3 AFP통신은 EU가 남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 군사훈련을 개시했으며, 모잠비크군에 非살상 무기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
 - * EU는 지난 9월 1,100명의 군인을 모잠비크에 파병하고 11.3 공식 훈련 개시

미주

- 美, 총기폭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매년 331조원 추정
 - 11.2 외신은 지난 5년간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194,000명에 달하며, 병원비·임금손실·생산감소만을 토대로 경제적 손실비용을 계산하더라도 매년 3,000억달러(약331조원)에 육박한다고 보도
 - * 또한, 총기로 인한 사망자 1명당 평균 20년 이상의 수명이 단축된 것으로 추산
- 美 국방부, 아프간 민간인 오폭 사건은 '단순 실수'
 - 11.3 美 국방부는 지난 8.29 발생한 아프간 민간인 오폭사건 관련, 공격 직전 정찰 카메라에 어린이가 찍힌 것은 인정하나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공습과정이 위법하지는 않았다고 발표
 - * 희생자가 소속되어 있던 구호단체는 "실수는 인정하나 잘못된 사람은 없다는 것은 모순"이라며 미군의 조사 결과는 부적절하다고 비판
- 美, 인종 관련 극우단체의 테러위협 크게 증가
 - 11.5 美 FBI 대테러부 「랜건」 부국장은 하원 정보소위원회에서 "국내 백인우월주의자 등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들의 관련 위협등급을 ISIS와 동급으로 상향 조정했다"고 언급
 - * 최근 18개월 간 미국 내 극단주의자들의 폭력 사건 2,700여건을 수사 중이며, 同 기간 18개 종교시설에 대한 공세적인 공격으로 70여명이 사망했다고 부언

아 · 태평양

- 아프간 국민저항전선(NRF), “탈레반 공식 인정” 경고
 - 11.4 反탈레반 단체 NRF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“탈레반은 40년간 전쟁과 파괴만을 일삼은 테러조직으로 아프간 대다수는 이들을 지지하지 않는다”며 ‘탈레반 공식 인정’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
- 아프간, 탈레반 치하 아프간 여성운동가 최초 피살
 - 11.6 英 가디언지는 아프간 발흐주 마자르이샤리프 지역에서 탈레반 치하 아프간에서 여성 인권 보장을 요구해온 여성운동가 「프로잔 사피」(29세)가 온몸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보도
 - * 同인은 탈레반이 자신의 행적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집을 떠난 뒤 독일 망명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
- 외교부, 항공테러 대응역량 강화 추진
 - 11.9 외교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테러리스트의 국경이동과 항공 화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美 국무부·인도네시아 對테러청과 공동으로 「아세안 항공보안 워크숍*」을 두 차례 개최
 - * UN 대테러실,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, 아세안 회원국 항공분야 종사자 60여명 대상 항공보안 관련 전문지식 전수

중 동

- 이라크, 드론 공습으로 총리 경호원 7명 부상
 - 11.7 이라크 정부는 이날 새벽 바그다드 그린존에 소재한 총리 관저에서 「무스타파 알카드히미」 총리를 겨냥한 드론 이용 암살 시도가 발생, 경호원 7명이 부상당했으나 총리는 무사하다고 발표
 - * 同 공격은 지난달 10일 총선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하였으며, 美 국무부는 “명백한 테러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”고 언급

이라크 주둔 이탈리아軍 헌병사령부 자살폭탄테러

- '03.11.12, 10시 40분경 이라크 남동부 디카르州의 州都 나시리아에 주둔 중인 이탈리아軍 헌병사령부 부근으로 폭탄 적재 차량 1대가 돌진 후 폭발, 이탈리아인 19명 등 27명 사망·80여명 부상
 - * 同 사건은 '03.4월 이라크戰 종료 후 美·英 외 외국 주둔軍을 상대로 발생한 최초의 테러이자 이탈리아軍 입장에서는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사례
- 당시, 이탈리아는 이라크戰을 주도한 美·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자국군(약 2,400명)을 파병*했는데, 외국군 철군을 요구하는 현지 저항세력들로부터 지속적인 테러 및 공격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
 - * 이탈리아軍은 주로 지뢰 제거·병원 건설 등 인도적 재건 분야에서 활동
- 사건 직후, 알-카에다(AQ)는 이번 차량폭탄 공격은 본인들의 소행임을 자처했으며, 이탈리아 「베를루스코니」 총리는 “현지 병력을 유지하고 대테러 전쟁을 지속할 것”이라며 철군 가능성을 일축
- 한편, 이번 테러는 현지에서 복구지원과 의료활동 작전을 전개중이던 국군 서희·제마부대 주둔지에서 20여km 이격된 곳에서 발생해 우리 軍은 장병 영외활동을 제한하고 정보·경계활동을 강화

< 알-카에다(AQ) >

- (목표·결성) 쉰세기 이슬람 원리주의 확산 및 神政국가 건설을 목표로 「오사마 빈라덴」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던 각국 출신 對소련 항쟁 참전자들을 규합해 '88년 결성



* 테러단체 지정 : UN('10.10), 미국('99.10), 캐나다('02.7), 영국·호주·인도·러시아 등

- (연계세력) 탈레반,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(AQIM), 예멘 알카에다(AQAP), 하야트 타흐리르 알 샴(HTS), 이슬람·무슬림 지지그룹(JNIM) 등
- (활동지역) 아프가니스탄·파키스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19.7 소말리아 남부 항구도시 키스마유 호텔 폭탄테러(사망 26명, 부상 56명)
'05.7 영국 런던 지하철과 버스 연쇄 폭탄테러(사망 56명, 부상 770명)
'01.9 美 항공기 4대를 납치, 뉴욕 등에서 공중 충돌 테러(사망 2,996명)